

# 커뮤니케이션 手段으로서의 服飾( I )

- 간디의 衣服行動을 중심으로 -

李 子 淵

新羅大學校 生活環境學部 패션디자인산업학전공

## A Study on the Costum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 )

- With Special Reference to Gandhi's Costume-Wearing Activity -

Ja-Yeon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illa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costum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cts on an individual, a society, and a nation by analyzing especially the costume-wearing activities of Gandhi, an Indian national leader, in the nineteenth-century India colonized by Britai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Change of costume in Gandhi's case corresponds with mental change.
2. Gandhi's costume-wearing activities show his social status.
3. Gandhi's costume act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t manipulates and rules social events, transforming social-political identities.

Thus, costume has a close relation to man's life. And it i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influencing man and man's environments.

Kew Word : 커뮤니케이션, 민족복, 카디운동, 민족운동, 간디식 인도복

### I. 序 言

服飾이란 거의 無限에 이를 정도의 潛在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고 있어, 性格, 年齡, 性, 役割, 地位 및 狀況을 규정하고 相互作用을 일으키는 중

요한 非言語的 象徴 중의 하나이다<sup>1)</sup>. 즉, 服飾은 각기 다른 個人을 一元化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表現하기도 할 뿐 아니라, 着用者의 思想이나 價値觀, 主張을 傳達하고, 支配와 自治, 富有와 貧困, 貞節과 섹시얼리티 등의 복잡한 道德的 倫理

的 諸 問題를 表現하는 方法으로도 使用된다. 그리하여 많은 服飾 類가 權力 保持者들의 注目을 끌어들였으며, 歷史를 통하여 보았을 때 中央集權化된 社會에서의 爲政者들은 服飾의 威力으로 신하와 백성들에게 恐怖와 威嚴의 寡圍氣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價値의 基準으로도 사용되어 貨幣와 同一하게 循環하였기 때문에 布의 富가 金, 銀, 寶石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本 研究는 이러한 多樣的 服飾의 意味 중, 19세기 英國의 植民地였던 印度에서, 印度의 民族 指導者인 간디의 衣服行動을 통하여 植民地 狀況 下에서 服飾이 커뮤니케이션 手段으로서 社會關係를 統合하고 政治力을 動員함에 있어서 어떻게 作用하였는지를 고찰함으로써, 人間生活에 있어서 服飾이 가지는 象徵의 潛在力을 再考함과 동시에, 이러한 服飾文化를 形成시킨 文化와 社會를 이해하기 위한 理論的 根據로 活用하고자 함에 그 目的을 둔다. 우선, 본 研究의 理解를 위해 英國 植民 下에서의 印度의 狀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狀況에서 등장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의 活動과 그가 입었던 의복의 變化를 檢討해 봄으로써 服飾이 가지는 意味에 대해 論議해 보고자 한다. 研究의 資料로서는 各種 文獻과 言論에 등장한 記事와 寫眞 등을 참고하였으며, 간디의 主要 活動과 衣服行動에 관하여는 英國 留學時節부터 인도의 獨立을 위해 투쟁할 때까지 論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研究는 獨특한 服飾文化를 形成시킨 文化와 社會의 올바른 認識을 위한 資料로서 價値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의 文化 領域과의 比較 研究를 통하여 文化要素간의 普遍性과 特殊性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役割을 할 것으로 期待된다.

## II. 英國 支配 下의 印度

### 1. 유럽세력의 進出과 인도의 植民地化

15세기 말 바스코 다가마에 의한 인도항로가 발

견된 후, 포르투갈은 인도 西岸의 고아를 본거지로 하여 東洋貿易의 獨占을 피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이 노린 것은 通商路의 確保에 있었으므로, 인도 기타 아시아 諸國의 沿岸 要地는 점거했으나, 그 勢力을 內陸 깊숙이 까지 浸透시키지는 않았다. 16세기 말부터는 네덜란드와 英國이 아시아에 진출하더니 마침내 양국이 각각 東印度會社를 창립하여 조직적인 活動을 시작하자, 포르투갈의 勢力은 점차 衰退하였다. 네덜란드와 英國은 처음에는 향료 등의 생산지의 점유를 피하여 자바, 마라카 등지에서 대립했으나, 17세기 전반에는 네덜란드가 강했기 때문에 英國은 후퇴하여 포르투갈 세력이 약화돼 있던 인도에 주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드라스, 봄베이, 켈커타의 三大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英國의 인도진출이 積極的으로 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東印度會社를 설립했지만, 그 인도 진출은 英國과의 對立을 초래하였다. 18세기 중엽에도 인도에서의 英·佛 兩國의 抗爭은 계속되었는데, 처음에는 듀플렉스가 지휘하는 프랑스가 優勢했으나, 英國 측에서 클라이브가 活躍하게 되자, 프랑스를 壓倒하고, 1757년 플라시 戰役에서 그 승리는 결정적으로 되었다. 英國의 東印度會社는 플라시 戰役 후 印度의 統治機關으로 變貌하여, 우선 벵갈 지방을 會社領으로 하고, 그 후 南印度의 마이소르, 中印度의 마라타 동맹, 西北印度의 시크 교도 등의 諸 勢力을 차례로 打倒하였다. 그 결과 同會社는 19세기 중엽까지에는 거의 全 印度를 支配하기에 이르렀고, 세포이의 戰亂(1857~1859)을 계기로 무갈조는 완전히 멸망하고<sup>2)</sup>, 東印度會社에 의한 統治는 英國 정부의 直轄統治로 되었다가 1877년 새로 英領印度帝國이 성립하여, 마침내 인도는 완전히 獨立을 喪失하고 外國의 支配를 당하게 되고 말았다.

### 2. 英國의 植民地 政策과 印度의 民族運動

英國의 지배로 말미암아 印度는 역사상 처음으로

政治的 지배가 外部에 의해서 행해지고, 印度의 經濟도 멀리 떨어진 英國에 의해서 左右 되었다. 英國의 印度 支配는 1600년의 東印度會社의 設立에서 시작되지만, 전기적 産業資本의 獨占的 貿易機關이었던 東印度會社는 주로 貿易에만 종사해 왔으나, 1757년의 플라시 戰役을 계기로 統治權力으로 등장하여 印度 농민의 直接的 收奪을 주요 사업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印度의 富의 流出이 심하여, 印度 특히 Бен갈의 貧困化가 초래되었지만, 이 Бен갈에서 收奪해간 富가 資本으로 되어 英國의 産業革命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原動力이 되었다. 英國商品은 印度에 殺到하여 自給 自足的인 村落共同體를 破壞하고 印度의 農村을 世界 資本主義의 물결 속에 강제로 끌어넣게 되었다. 印度의 織物工業은 破滅되고 수많은 手工業者는 職業을 잃고 沒落하였다. 英國은 傳統的인 經濟制度를 破壞하면서 封建的인 地主를 창출 옹호하고 資本主義를 印度에 도입하면서도 近代 工業의 發達은 극력 抵制했다. 이 때문에 印度의 産業資本은 그 發達이 阻害되어 印度는 1820년대에 工業製品의 輸出國에서 收入國으로 轉落하고 말았으며, 印度의 農村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넘쳐 토지소유의 分細化가 促進되는 등, 印度의 생활의 破壞를 端的으로 나타내는 饑饉의 頻度와 그 災害의 정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增大해 갔다. 이러한 失業과 貧困이 印度의 勞動人口로 하여금 굴욕적인 條件을 무릅쓰고 여러 外國에 大規模의 移住케 했는데, 그들은 남아프리카와 피지, 트리니다드, 자마이카, 실론, 미얀마 등지를 향하여 移民의 길을 떠났다. 이렇듯, 英國人의 支配는 印度로서는 여태까지의 어떠한 侵略이나 政治的 變化와는 比較가 안될 만큼 전혀 새로운 현상으로, 印度 社會에 큰 變化를 일으켰다. 英國의 支配가 印度社會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衝擊을 준 이유는 英國이 새로운 機械文明의 先驅者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世界를 變革시키려는 새로운 歷史的 勢力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들은 變化가 자기들의 地

位를 堅固化 하는데 필요하거나, 자기들의 利益을 위해 인도 的인 物的 資源을 開發 擄取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온갖 手段을 다하여 變化를 抵制시키려고 애썼다. 그것은 그들이 進步的인 變化가 印度 民衆의 힘을 強化하여 결국 자기들의 立場을 弱화시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變化는 일어나기 시작해, 印度 民衆을 覺醒시켰고, 覺醒한 印度 民衆은 民族의 自覺을 갖게 되어 英國의 支配에 反旗를 들게 되었다. 英國의 支配에서 벗어나려는 大規模의 民族運動은 1857~58년의 세포이의 反亂을 비롯하여 各地에서 여러 가지 形態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民族運動은 新興 中産階級의 광범한 호응을 얻어 民族 精神을 昂揚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民族精神이 昂揚되자 資本家, 특히 歐美文化의 혜택을 받은 知識層은 英國의 印度 統治의 融合化를 피하는 동시에 政治的 發言權을 強化하고자 政治 團體를 組織하게 되었는데, 印度人 聯盟(1876), 印度人 協會(1883), 그리고 1885년에 개최된 國民會議가 그것이다. 이 國民會議가 오늘날의 國民會議派의 創始이다<sup>3)</sup>.

世界를 執中시켰던 간디의 獨立運動은 穩健派의 지도자인 고칼레와 過激派의 지도자인 티일락의 影響에다가 그의 鬪爭 戰略이 한때 어우러진 결과였다. 인도 國民運動의 性格도 크게 변하여, 초기의 進步的 民族主義者들은 穩健派로 불렸고 國民會議를 掌握했던 穩健派는 또한 過激派에 의해 밀려나는 등 急變하는 政治的 雰圍氣였다. 따라서 간디의 獨立運動도 이러한 時代的 變化의 모습이며 간디의 卓越한 鬪爭 活動이 여기에 適應하고 또 새로운 變化를 주도해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組織하고 지도한 獨自的인 운동의 經驗을 바탕으로 시도한 1919년 롤라트 법 反對 鬪爭을 계기로 政治에 登場하여 全國的인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展開하였다. 그가 지도한 民族運動의 독특한 방식은 사티아, 아힘사라는 특이한 思想에 入閣한 非暴力, 不服從, 非協力運動이었으며, 그는

印度의 情致 舞臺에서 대단한 影響力을 發揮하는 主役으로 登場하게 되었다.

### III. 모한다스 카라므찬드 간디

모한다스 카라므찬드 간디는 1869년 10월 2일, 현 구자라트주의 카티아와르반도에 자리잡고 있는 조그마한 해안도시 포르반다르(白布라는 뜻)에서 태어났다<sup>4)</sup>. 포르반다르는 어부와 선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도시로, 흰 돌로 지은 사원과 골목길이 많은 곳이다. 부친인 카라므찬드 간디는 喪妻를 거듭하면서 네 번 결혼했는데, 그 네 번째의 妻인 파틀리바이와의 사이의 3남 1녀 중 간디는 막내로 태어났다. 간디는 英國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대규모의 인도 民族運動인 세포이의 反亂(1857)과 국민회의 파가 創立(1885)된 시기의 사이에 태어났으며, 이 시기는 인도에도 점차 새로운 중산계급이 발생하여 그들에 의한 宗教的 社會的 改革運動이 일어나고 政治團體가 생겨나기 시작하려는 무렵이었다. 간디의 家門을 보면 간디 家는 인도의 카스트 상으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다음가는 바이샤의 일종인 바니아에 속해 있었다. 이는 商人階級에 속하며, 간디라는 말은 힌디어로 「곡물창」이라는 뜻<sup>5)</sup>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디가 예서는 간디의 조부도 부친도 숙부도 포르반다르 번 왕국의 首相을 지냈다. 소년시절의 간디는 몹시 수줍어하고, 외모나 재능에 있어서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양친에의 효심과 의무에의 獻身, 誠實하고 正直한 마음씨와 타인의 결점을 꼬집기 싫어하는 性品은 젊은 학생시절에도 뚜렷했다. 그는 7세 때 부친이 라지코트 번 왕국의 법관이 되었으므로 그곳에 가서 소학교에 들어가 12세 때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7세 때에는 바브나가르에 있는 사말다스 대학에 입학했으며, 7세 때 같은 나이의 카스트르바이와 약혼하고, 고등학교 시절인 13세 때에 결혼했다. 그는 어린 시절 수줍음을 타 학우들과 어울리지 않

았고 수업만 마치면 곧장 집에 달려오곤 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양친을 인도하며 巡禮하는 효자 슈라바나의 희곡을 읽고, 또 그 연극을 보고는 크게 감명을 받아 자기도 그러한 효자가 되려고 마음먹고, 병석에 있는 부친을 간호하였으며, 또한 英國 유학의 길을 떠날 때 술과 고기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모친과의 약속을 끝내 지켰다<sup>6)</sup>. 이렇듯 젊은 시절의 그의 언동에서 孝心, 義務感, 誠實性, 寬容의 性品을 찾아볼 수 있으나, 당시에는 누구도 이런 性品에서 그의 將來의 運命을 豫測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의 心靈 속에 깊숙이 깃 들어 있던 이러한 性品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內容과 範圍는 擴充되어 가, 兩親에의 孝心은 조국 인도에 대한 忠誠으로 되었고, 義務에의 獻身은 人類에의 奉仕에 대한 일관된 獻身으로 되었다. 또한, 誠實하고 正直한 마음씨는 평생을 통한 眞理의 探究로 되었고, 타인의 결점을 꼬집기 싫어하는 性品은 適에 대한 寬容과 公정한 態度로 되었다. 장님의 양친을 인도하며 巡禮하는 슈라바나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소년 간디는, 성장하여 억압받던 인도 국민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 IV. 간디의 活動과 衣服行動<sup>7)</sup>

#### 1. 영국유학과 남아프리카시절의 간디

1888년 9월 4일, 간디의 나이 만 18세 때 그는 妻子를 고국에 두고 단신 봄베이를 떠나 英國에 유학했다. 포르반다르지방의 흰옷을 고수하며 티끌하나 없는 멧진 플란넬을 갖춰 입고 배에서 내린 간디를 검은 양복을 입고 지나가는 英國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 英國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社會的 立場과 意匠과의 관계를 把握하게 된 간디는 英國社會에서는 자신의 印度 民族服이 어울리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곧 본토거리에서 만들어진 야외복에 가죽구두, 실크모자로 단장을 하였다. 그는 넥

타이 매는 법,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는 법, 실크햇을 쓰는 법 등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만 했으며,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방법, 예법, 법률, 그리고 특히 옷차림에 대하여 간디는 완벽한 덴디가 되어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다. 이 시기에 간디는 英國式 신사가 되려고 값진 양복을 맞추어 입고, 댄스와 웅변과 바이얼린을 배우기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 그러나, 그는 식이요법을 시행하며 채식주의자 단체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지출을 절제하기 시작하였다. 식비를, 다음에는 교통비를, 마지막으로 주거비를 절약하였는데, 의복 비는 결코 아끼지 않았다<sup>8)</sup>.

1891년, 英國에서 유학한 간디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西洋화된 복장으로 봄베이에 돌아왔다. 조국에 돌아온 간디는 다시 소심해졌다. 형 락스미다스가 자기를 해고한 英國 관리 앞에서 변론해 달라고 부탁해 왔다. 이 청년 변호사는 주저하다가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일이 너무 서툴러서 내쫓겼다. 상대를 설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인도와 마찬가지로 英國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던 포르반다르 출신의 회교도 상사로부터 고문변호사로 와 달라는 의뢰가 있었다. 간디는 처자를 두고 혼자서 좋은 보수, 1등석 여행권, 1년의 계약을 조건으로 남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정하였다<sup>9)</sup>.

1893년 5월 간디는 남아프리카 나탈<sup>10)</sup>의 더반함에 上陸하였다. 당시 나탈에는 약 7만 명의 인도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대다수는 契約 勞働者 및 契約期間이 끝난 자유노동자이고 나머지는 회교도 상인과 힌두교도 및 파르시 교도의 서기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수의 외국인의 유입은 백인 주민간에 외인 배척문제를 야기시켰다. 즉, 백인에게 인도는 그가 브라만이든 천민이든, 계급이 어떻든 간에 그저 하층은 콜리(coolie)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품위 있게 살 권리가 없으며, 심지어 보도 위를 걸을 권리조차 없었다. 변호사 간디가 자신 역시 더러운 콜리 일 뿐임을 알게 된 것은 소송사건을 맡아

프리토리아로 가는 도중에 마리츠버그의 작은 역에서였다. 그는 1등석 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 백인이 그가 인도인임을 알아보았고, 그는 짐과 함께 플랫폼에 내던져졌다. 간디는 그날 밤 추위와 분노로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정치의식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인도인다움을 英國人다움과 양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예로 멋진 프록코트, 다리미질이 잘 된 바지, 번쩍이는 구두를 터번과 함께 착용하였던 것이다<sup>11)</sup>. 1등차로 여행하려고 한 일로 프리토리아행 열차에서 쫓겨난 후, 그는 완벽한 英國服으로 몸단장을 하고서 역장에게 가서 1등표의 발행을 요구하였다<sup>12)</sup>. 그는 이번에는 성공하였다. 역장은 “당신은 신사입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양복차림의 인도인에게는 1등과 2등석의 표를 발행하도록 철도 당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sup>13)</sup>. 인도인은 英國人과 마찬가지로 文明化될 수 있고, 英國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특권이 부여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는 행동으로 보이려고 한 것이었다. 다시 찾은 능력으로 그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자유의 수호자가 되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가 귀국하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한 송별회에서 간디는 우연히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다. 그것은 나탈정부가 인도인들에게서 입법단체 회원 선출 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기사였다. 간디는 한 달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응낙하였다<sup>14)</sup>. 간디는 자신의 남아프리카 연방 체류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인도에 있는 가족들을 찾아서 떠났다.

1896년 가족을 남아프리카에 데리고 왔을 때, 남아프리카에서 천대받은 인도인인 만큼, 위신을 세우고자 住宅과 家財道具에도 무척 신경을 썼었는데, 간디는 文明人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服裝과 매너는 서구의 標準에 될 수 있는 대로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服裝도 유럽 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 妻子에게도 유럽식

의 복장을 하게 하여<sup>15)</sup>, 구두와 양말을 억지로 신게 하는 등, 이에 익숙지 못한 妻子한테서 불평이 나오면 화를 내기도 하였다(도 1).



<도 1> 영국신사 간다:간다, 시공사

## 2. 실험가로서의 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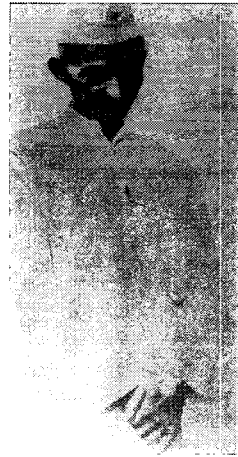
간디는 보아전쟁(1899~1902) 당시에는 인도의 완전한 해방은, 英帝國內에서 英帝國을 통해서만 可能하다고 믿고 英國을 위해 自進해서 1100명으로 구성된 인도인 야전위생대를 인솔하여 종군했었고<sup>16)</sup>, 또 줄루족반란(1906년 전반)시에는, 英帝國은 세계의 福祉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으므로 자진해서 24명의 인도인 야전위생대를 이끌고 나탈 정부를 도왔다<sup>17)</sup>. 그는 私적으로는 보아인과 줄루족에 동정하면서도 英國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英國을 위해 종군했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906년 8월 22일 부의 트란스발 政府官報는 8세 이상의 모든 인도인은 정식 등록과 함께 지문을 찍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벌금, 투옥 또는 추방의 형벌을 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게재하였다. 이는 말하자면 트란스발에서는 인도인 전체를 일종의 범인으로 취급하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인도인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간디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sup>18)</sup>. 간디는 이 사건 이후부터 이미 인도인은 英國人이 될 수 없으며, 인도는 인도인에 의하여 인도의 국익

을 위하여 통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이제 더 이상 洋服이 文明的의 指標이고, 印度服은 文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 믿지 않았으며, 이 무렵부터 간디는 服飾이 社會的의 場面을 操作시키고 나아가 政治的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다는 信念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 實踐의 하나로 意匠으로써 實驗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의 實驗의 意圖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 힌두교도와 시쿠교도, 이슬람교도와 같은 相異한 集團間의 區別을 超越하여 모든 인도인들을 統一시킬 수 있는 服飾을 찾아 쫓아 印度人의 精神的의 統一을 追求하는 것이었다. 이 實驗은 사티아그라하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인 1901년부터 1921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기간 중 간디는 多樣한 意匠으로 實驗을 하였다. 먼저, 1901년 인도인의 생활에 대해 알기 위해 국내를 순회할 때, 간디는 단순하고 값이 싼 印度服을 입고 여행을 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그는 승객들의 가려한 모습, 무례함, 더러움, 무지를 보고 분개하였으며, 소유에 대한 경멸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다<sup>19)</sup>. 그 당시, 은사로 모시는 고칼레의 복장에 대한 간디의 기록을 보면, “의회에서 그가 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나는 그가 집에서는 벤갈의 도티와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였다. 나 자신은 그때 파르시의 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복장의 단순함에 마음이 끌렸다”<sup>20)</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1909년 간디가 톨스토이 농장에 정착하였을 때, 그는 형무소의 유니폼을 채용한 유럽스타일의 노동자의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고<sup>21)</sup>, 또한 사티아그라하 운동이 한창일 때에는, 런지와 구르다 코트를 입고 머리와 발에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은 채, 지팡이를 짚고 어깨에는 포대를 맨 모습이었는데, 당시 간디가 이러한 服裝으로 變身한 것에 대하여 안드류사는 “런지와 구르다를 입고 머리는 거의 까까머리이며 지팡이를 손에 든 사나이가 누구인지 몰랐다”<sup>22)</sup>고 하는 기록이 있다.

또, 1908년 형무소에서 나온 후, 어떤 회합에서 터번과 도티를 입고 맨발에 턱수염은 작은 간디의 모습이 기술되어있으며, 1914년 英國을 방문할 때에는 英國 신사의 옷차림으로 여행하였다<sup>23)</sup>. 그리고 다음해인 1915년, 22년만에 인도에 돌아올 때에는<sup>24)</sup> 가티아와리지방의 힌두교 농민의 옷차림인 도티, 안갈가(소매가 긴 자켓), 겹옷, 터번의 인도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복장은 지역, 계급, 그리고 종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도인을 대표하는 의장은 될 수 없었으나, 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社會的 場面의 操作을 위하여 意圖的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서로 다른 집단간의 구별을 超越하는 意匠을 찾기 위해, 實驗을 하였는데, 1916년에는 간디캡과 비슷한 암색계통의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sup>25)</sup>. 1918년에는 게다 에서 사티아그라하가 한창일 때, 그는 다시 가티아와리 농민복장에 터번을 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1919년 알리트살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자가방적제의 흰 간디캡을 썼는데, 챙없는 이 모자는 오늘날 집권 국민회의 파의 모자로 남아있지만, 이것은 남아프리카의 죄수복에서 고안해 낸 것이라 한다<sup>26)</sup>. 또한, 1921년, 이 무렵부터 간디는 술과 짧은 요포만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인도의 통일을 위해 종교, 인종, 카스트의 결합을 강조하였으며<sup>27)</sup>, 간디가 전 인도인의 대표자격으로 총독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sup>28)</sup>. 이러한 차림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은 英國의 대표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였음을 意味하며, 이를 계기로 마침내 간디는 英國화된 印度 사람에서 흰 면옷을 입은 土着 印度人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조금씩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기 시작하였다(도 2)(도 3).

### 3. 민족 지도자로서의 간디

1919년 11월에 간디는 이슬람 술탄 칼리파트를 支援하기 위해 이슬람 회의에 참석했다. 칼리파트



<도 2> 국민회의파의 略帽를 쓴 간디; 간디, 시공사



<도 3> 사티아그라하투사의 복장을 한 간디; 간디, 시공사

는 廢位가 임박하여 威脅을 느끼고 있었다. 이 회의는 壓制者인 서구에 대항하여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함께 참석한 감격스런 만남이었다. 간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非協力'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創案해 내었다. 印度는 고대부터 세계 최대의 면수 출국이었으나, 19세기에 수출은 급격히 減少하고 세계 최대의 綿絲와 綿製品의 收入國이 되는 등 인도가 貧困해지고, 인도의 아이덴티티가 약화된 主要原因을 간디는 英國의 支配로 말미암은 土着工藝의 崩壞로 보았다. 인도를 지배한 英國人에게 給料과 年金을 지불하기 위해 인도의 富가 搬出되었으

며, 인도에 流入하는 英國製 原絲와 綢에 과해지는 낮은 關稅와 인도에서 搬出되는 印度織物에 과해지는 높은 關稅가 織物産業의 沒落을 招來시켜, 인도의 貧困을 惡化시키는 不均衡 經濟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간디는 인도가 재차 자기의 綢을 생산하게 된다면 수백만의 실업자가 일을 얻게 될 것이며, 인도의 富는 英國에 빼앗기는 일없이 인도인이 다시 자신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英國을 무너뜨리려면 그 나라를 拒否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sup>29)</sup>. 즉, 이제부터 英國人 학교에 다니지 않고, 英國人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며, 인도산 綿으로 英國에서 값비싸게 만든 옷을 벗어버린다는 등의 내용이였다.

1920년, 國民會議가 이러한 그의 口號를 採擇하였으며, 1921년에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즉, 외국제의 綢을 보이콧하기 위한 캠페인을 할 것, 국민회의의 임원이나 일을 보는 사람은 면사를 손으로 자아 손으로 짠 綢을 입도록 요구하는 일, 그리고 중앙에 불레가 그려진 旗를 채용할 것 등, 綢을 民族主義 프로그램 속에 정식으로 짜 넣는다는 내용이였다. 손으로 옷감을 짜는 카디(khadi) 운동은 간디가 그리던 이상적 사회질서의 기초였던 自給自足的인 村落工業 經濟의 理念에 있어서 中心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다. “만일 농촌이 그 식량을 생산하듯이 스스로의 옷감을 생산할 수 있다면, 농촌은 그 기본적 必需品을 自給自足하게 되어 그 이상 도시에게 擄取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간디는 카디를 인도의 國民的 統一과 그리고 自由와 平等의 象徴이라고 보고, 카디운동의 推進을 모든 愛國의 인도인 특히 建設의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義務로 삼게 하였다<sup>30)</sup>. 실제로 물레와 카디는 英國製品를 排擊하고 인도 자신의 것을 손으로 짜는 일을 가르치는 동시에 혹서 때문에 농한기가 긴 인도 농민에게 현금수입의 길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방법이었다. 네루도 인도의 國民的 統一의 象徴인 카디운동의 精神的 意義를 强

調하였다. 카디운동은 인도로 하여금 가난한 農民을 人間으로서 생각하게 하고, 농민의 지위와 생활 상태의 개선에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파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결의가 채택된 것은 간디가 이미 인도인의 생활에서의 服飾의 役割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커뮤니케이션의 媒體로서, 또한 生計手段으로서 服飾과의 經驗을 수십년 蓄積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이러한 議案의 採擇에서 드러나지 않은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간디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입었던 그의 최후의 의복인 요포와 술은 1921년 카디운동의 復興을 위해 全國의인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착용되었다. 그는 “런던의 일류상가인 본드 가의 服裝이나 봄베이의 멋진 옷차림을 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농민들의 마음과 통할 수가 있겠는가”<sup>31)</sup>고 반문하면서 이 옷차림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은 인도의 민족복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불품없는 것이였다. 간디가 이러한 차림을 고안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집회는 거대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민중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란 점차 어렵게 되었다. 그를 보려고 온 사람의 대부분은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청중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사하고 있는 구자라어, 힌두어 또는 영어를 많은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디는 인도의 민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매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인도인에게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外觀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부터 그는 셔츠와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머리와 발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고 신지 않았으며, 알몸에다 술과 요포만을 걸친 그의 특유의 衣服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인도의 통일을 위해 종교, 인종, 카스트의 결합을 강조하고 스와데시와 물레질을 逆說하였다<sup>32)</sup>. 수백만의 열광적인 聽衆들을 앞에 놓고 간디가 開會한 集會가 끝나면 英國製 옷이 산더미같이 쌓이고, 사람들은 서



양복인 바지와 셔츠를 모두 벗어 던져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었다. 간디가 身分證과 옷을 쌓아올린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불길에 옷을 태우는 동안, 그는 "이제부터 전통적인 구식 물레로 인도산 면을 스스로 짜내야 한다"고 엄숙하게 말했다. 국민회의의 깃발에는 '차르카(charka, 물레)'의 새로운 로고가 나붙기 시작하였으며, 민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실을 짓기 시작하였다<sup>33)</sup>. 이리하여 간디는 인도 민중과 정신적으로 交感을 갖게 되었으며, 동시에 不服從 非協力運動이 全 印度 民衆의 것으로 되어갔다. 간디는 英國 신사였던 예전의 자신의 모습에서, 인도적 금욕주의자, 성인으로 탈바꿈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한 사람의 초라한 인도 노인에 지나지 않은 그가 단지 요포와 솔, 두 장의 천으로서 인도인의 평등함과 인도문명의 위대함을 전하였던 것이다. 즉, 衣服이 가지는 傳達力이 文字解讀率이 낮은 인도에서는 이미 言語의 限界를 넘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의 간디를 보러 왔다. 더욱이, 인도사람들은 인도 特有的의 視覺的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즉, 성스러운 사람을 직접 봄으로서 보는 자가 祝福을 받게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인도의 전통적 습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의 외관상의 힘은 말에 의한 메시지 이상의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인도인은 그의 옷차림에서 文明에 대한 그의 輕蔑과 物質의 所有에 대한 輕蔑, 그리고 印度 文明에 대한 그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도 4)(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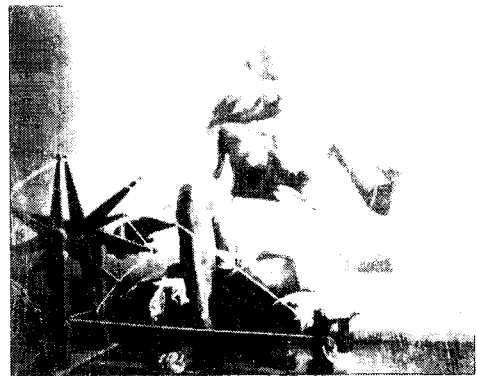
## V. 커뮤니케이션 手段으로서의 服飾

前述한 바와 같이 간디의 衣服行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단계로- 간디는 1888년 英國으로 유학을 떠날 당시에는 출생지인 포르반다르지방의 民族服을 입고 英國으로 떠났으나, 英國에서의 생활이 시작되



<도 4> '간디식 인도복'을 입은 간디; 간디, 시공사



<도 5> 물레질하는 간디; 간디, 시공사

면서 차츰 그의 옷차림과 生活方式는 西洋化되어 갔으며, 歸國할 때에는 완전히 西洋化된 服裝으로 봄베이에 到着하게 된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의 滯留時에도 西洋服을 固守하였으며,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것을 強要하게 된다. 둘째 단계로- 간디가 인도의 獨立을 위해 活動할 時期에는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의한 엄격한 階級과 宗教, 地域을 超越한 인도를 대표할 만한 衣服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服裝으로 實驗을 계속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전 인도인의 精神的인 支柱로 推仰을 받을 당시의 간디의 모습은 허리에 두르는 짧은 천과 솔 그리고 지팡이만을 든 초라한 복장의 노인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간디의 옷차림을 보면, 젊은 시절 西洋服을 착용하던 변호

사 간디가, 단지 허리에 짧은 천과 솔만 두른 순박한 사람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衣服의 變化는 간디의 精神의 變化와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文明人으로 보이기 위해 服裝과 生活樣式을 모두 西洋式으로 바꾸었을 때의 간디는, 印度人은 英國人과 마찬가지로 文明化될 수 있고, 英國의 市民과 동등한 權利와 特權이 부여될 資格이 있다는 思考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간디의 衣服이 西洋服에서 다시 印度의 民族服으로 變化할 당시에는, 印度는 印度人의 國益을 위해 統治되어하며, 西洋服이 文明의 指標이고 印度의 民族服이 文明이 缺如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印度人은 英國人이 될 수 없다는 것을 認識하게 된 것이다. 즉, 간디의 外觀이 英國化된 인도사람에서 흰 면옷을 입은 土着 印度人으로 변화되면서, 開放的이고 民主的이며 유럽적인 思考에서, 民族主義·人類愛的인 精神으로 변화되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간디의 衣服行動에서, 服飾의 意味는 무엇이며, 커뮤니케이션 手段으로서 자신과 社會, 國家에 어떻게 作用하였을까.

첫째 단계에서-(도 1)에서와 같이 넥타이에 양복을 차려 입은 英國 신사 간디는, 印度人은 英國人과 마찬가지로 文明化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衣服이 文明人으로 만드는 決定的 要素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예로 그는 衣服費의 支出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가족들의 服裝은 물론 住宅과 家財道具도 西洋化로 바꾼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그는 의복으로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사회적 위치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英國人으로부터 文明化되었음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둘째 단계에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 지도자로 변화해 가기 시작한 간디는, 이제 더 이상 西洋服에 비하여 印度의 民族服은 文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인도인의 긍지를 위해서는 인도의 복식을 착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階級과 宗教, 地域이 각기 다른 印度人들을 統一시킬 수 있

는 媒體로서, 印度의 民族服을 採擇하게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嚴格한 카스트제, 多様な 宗教, 多様な 人種이 혼재해 있는 印度社會에는 民族服 또한 嚴格히 區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印度人 모두가 平等해지고, 宗教적으로 統合되고, 精神적으로 統一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의복을 考案하기 위해, 多様な 복장으로 實驗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간디의 복장을 통하여 그의 노력을 잘 알 수 있다. 이미 간디는 의복이 社會的 場面를 操作시키고 政治的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手段임을 지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단계에서- 간디는 印度民衆들에게 옷감을 직접 짜게 하는 '카디운동'의 지지를 구하면서, 全 印度人을 대표하는 衣服으로서 '간디식 인도복'을 고안하여 착용하게 되었다. 허리에 짧은 옷을 두르고 손으로 짠 흰 무명의 솔로 몸을 감싼 초라한 간디의 옷차림이 그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英國의 綿産業의 獨占으로 인하여 印度의 綿織業은 파괴되었고 國民들의 生活는 말할 수 없을 만큼 悲慘하였으나, 요포와 솔만을 걸친 간디의 모습은 인도민중에게서 정신적인 합일을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천을 직접 손으로 짜도록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 전 국민의 손에는 물레가 쥐어졌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自給自足할 수 있을 만큼의 經濟的인 自立을 圖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는 다시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즉, 손으로 직접 짜여진 간디의 최후의 의복인 '간디식 인도복'은 印度民衆을 하나로 統合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구축하는 힘으로 발전하는 한편, 經濟的 自立과 단결된 印度人의 힘은 결국 政治力을 動員할 수 있는 힘으로 發展하여 印度의 獨立은 成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 VI. 結 言

本 研究는 복식이 커뮤니케이션 手段으로서 個人

과 社會, 國家에 미치는 象徴的 潛在力을 究明하기 위한 것으로서, 19세기 英國의 植民地였던 印度에서, 印度의 民族 指導者인 간디의 活動과 衣服行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간디의 衣服行動을 분석한 결과, 그의 衣服行動은 '서양복의 착용(도1)-실험용 의복의 착용(도2,3)-간디식 인도복착용(도4,5)'이라는 段階의 變化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이러한 衣服의 變化는, 英國 支配 下의 特殊한 狀況에서 그의 宗教觀과 價値觀, 그리고 그가 英國으로부터 받았던 教育 등 여러 가지 經驗에서 기인된 것으로 思料된다. 즉, 英國化된 인도사람에서 흰 면옷을 입은 土着 印度人으로 變化되면서, 開放的이고 民主的이며 유럽적인 思考에서 民族主義 人類愛의인 精神으로 變化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간디의 衣服行動에서 나타난 服飾의 意味를 要約해 보면, 먼저 제 1단계에서 복식은 간디 자신의 社會的인 位置를 나타내 주는 手段으로 着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 간디는 多樣한 宗教와 階層, 人種의 印度人이 모두 平等해지고 宗教的으로 統合되고 精神的인 統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은 視覺的인 言語인 衣服입을 知覺하고 여러 가지 복장으로 실험을 하였다는 점에서, 服飾은 社會的인 場面을 操作시키는 手段으로서의 意味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단계에서 오포와 술만의 '간디식 의복'이 印度의 經濟的, 政治的 自立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服飾은 經濟的 自立과 政治力을 支援하는 커뮤니케이션 手段으로서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항상 근접한 곳에 있는 服飾은 人間의 經驗과는 밀접한 關聯性을 갖고 있어, 그 속에서 服飾이 갖는 힘은 신비한 힘이 아니라, 人間이 日常生活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이며, 나아가 人間과 環境에 작용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媒體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반고지편, 인도의 전통과 변화, 현음사, 1990.
  - 정병조, 인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1994.
  - 조길태, 인도 민족주의운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4.
  - 차기벽, 간디, 태양문화사, 1977.
  - 채규철, 사회혁명가 간디, 정우사, 1987.
  - Bondurant, Joan V., 유성민역, 간디의 철학과 사상, 현대사상사, 1990.
  - B.R. Tomlinson, 이옥순역, 인도 경제사, 신구문화사, 1994.
  - Clément, Catherine,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 Percival, Spear, 이옥순역, 인도 근대사, 신구문화사, 1993.
  - Romain, Rolland, 신관용역, 간디의 명상일기, 인왕출판사, 1989.
  - Ashe, Geoffrey, Gandhi, Stein and Day, 1968.
  - Clément, Catherine, Gandhi: athlete de la liberte, Gallimard, 1996.
  - Fisher, Louis, The Life of Mahatma Gandhi, Granada, 1982.
  - Gandhi, M.K,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 Gold, Gerald, Gandhi: A Pictorial Biography, New Market Press, 1983.
  - Jaju, Shrikrishnadas, The Ideology of Charka, Tirupur, 1951.
  - Nanda, B. R, Mahatma Gandhi, Beacon Press, 1958.
  - Nehru, Jawaharlal, The Discovery of India, Calcutta, 1946.
- 1)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Hoaghton Mifflin Company, 1975, p.191.
  - 2)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p.11-13.
  - 3)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37.
  - 4) Catherine C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29.
  - 5) 蠟山芳郎, 마하트마 갠지-, 岩波新書, 1950, p.30.
  - 6)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p.52-55.
  - 7) 간디의 활동과 의복행동에 관하여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그의 유학시절부터 인도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때까지의 것을 다루었으며, 그의 반생의 행적을 통한 의복의 변화에 관하여는 역사적 서술법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 8) Catherine C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p.33-34.
  - 9) Catherine C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35.
  - 10) 남아프리카 연방의 한 州로, 당시는 英國 세력하의 공화국이었음.

- 11) Louis Fisher, *The Life of Mahatma Gandhi*, Granada, 1982, p.57.
- 12) M.K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p.116.
- 13) M.K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p.128.
- 14) Catherine E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38.
- 15)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74.
- 16) M.K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p.214.
- 17) M.K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p.313.
- 18)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78.
- 19) Catherine C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52.
- 20) M.K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p.234.
- 21) B.R Nanda, *Mahatma Gandhi*, Beacon Press, 1958, p.109.
- 22) M.K Gandhi, *An Autobiography: The Story of My Experiments with Truth*, Beacon Press, 1957, p.176.
- 23) Louis Fisher, *The Life of Mahatma Gandhi*, Granada, 1982, p.151.
- 24)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182.
- 25) Gerald Gold, *Gandhi: A Pictorial Biography*, New Market Press, 1983, p.59.
- 26) Geoffrey Asch, *Gandhi*, Stein and Day, 1968, p.199.
- 27)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201.
- 28) Catherine C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79.
- 29) Shrikrishnadas Jaju, *The Ideology of Charka*, Tirupur, 1951, p.8.
- 30)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167.
- 31) Louis Fischer, *His Life and Message for World*, New York, 1954, p.53.
- 32) 車基璧, 간디, 太陽文化史, 1977, p.201.
- 33) Catherine Clément, 이현숙역, 간디, 시공사, 1998, pp.62-63.